

거세지는 추격전...민주 본경선 신경전 격화

이재명 '원팀' 기초 공세 대응
 이낙연 "8월초 골든크로스 온다"
 정세균 단일화 강점 조직 확장 주력
 박용진 '이재명 검증' 대표 전략
 양승조·최문순 향한 구애전 치열

더불어민주당 대권레이스 열기가 갈수록 뜨거워지고 있다. 김두관, 정세균, 이낙연, 박용진, 추미애(기호순) 후보는 '여배우 스캔들'을 비롯해 1강인 이재명 후보의 도덕적 특세를 파고들었고, 이재명 후보는 '원팀' 기초를 내세워 다른 경선 후보의 공세에 맞섰다.

이낙연 후보 측 관계자는 13일 "7월 말에서 8월 초에는 골든크로스가 이뤄질 것"이라며 "예비경선에서 '바지 발안'을 보면서 지지자들이 이재명 후보를 불안한 후보로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세균 후보는 조직 확장에 주력하고 있다. 정 후보는 이날 예비경선 과정에서 단일화했던 이광재 의원 측과의 인적 결합을 골자로 하는 '미래경제캠프' 인선안을 발표했다. 이광재 의원이 직접 캠프 선대위원장을 맡고, 이광재 의원 측의 부산 출신 박재호 전재수 의원이 공동 총괄본부장과 공동 대변인직을 맡았다.

정 후보는 이날 간담회에서 "이광재 의원과 단일화, 양승조 충남지사와의 연대가 성사돼 고무됐다"며 "더 심기일전해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고 했다.

본선 진출에 실패한 최문순 강원지사와 양승조 충남지사를 향한 구애전도 뜨겁다. 정세균 후보가 한발 앞서 양 지사를 찾았고, 이날 양 후보가 자신에 대한 지지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도자료를 냈다. 이에 질세라 이낙연 후보도 이날 양 지사와 오찬 회동에 나섰다. 14일엔 최 지사와 만남도 추진한다. 추미애 후보는 당의 심장 격인 호남 방문을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13일 오후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코로나19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이낙연 전 대표가 13일 충남도청을 방문해 기자들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세균 대선 예비후보가 13일 서울 여의도 캠프 사무실에서 '미래경제 캠프' 인선안 발표를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시작으로 본격 활동을 시작한다. 예비경선 과정에선 주로 방송과 SNS를 통해 활동을 해왔지만 직접 전국을 돌며 당원들을 만날 계획이다. 추 후보는 14일 광주에서 비전 선포식과 함께, 최근 출간한 대담집 '추미애의 것' 북 콘서트를 연다. 이후 목포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을 방문한다.

박용진 후보는 '이재명 검증'을 대표 전략으로 내세웠다. 이재명 후보의 대표 정책들을 하나하나 비

판해 이목을 끄는 동시에, 자신의 정책적 선명성을 부각하겠다는 것이다. 이른바 '이준석 들쭉'을 타고 상승세에 올라왔던 박 후보는 '젊은 바람'을 내세워 지지세를 넓히겠다는 입장이다.

김두관 후보는 이번 주부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인 부산·울산·경남을 돌면서 당의 불모지 영남에서 정치적 지평을 넓혔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하며 당심 구애에 나선다.

경쟁 후보들의 움직임에 대해 이재명 후보 측은 "참모들이 이 지사에게 'TV 토론할 때마다 몸이 사리가 난 뒤씩 생겨도 감내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말씀을 드렸다"고 전했다. 당내 1위 주자인 이 후보는 앞서 당 예비경선 과정에서 상대 후보들의 정책, 도덕성 공세의 집중 타격을 받았다.

본인의 표현대로 '만인의 공적'이 된 상황이지만 '깡패진 사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상대 후

보들에 대한 공세를 자제했다. 여기에는 당내 입지에 대한 고려가 깔려 있다. 현재 당 1위 주자인 이재명 당 주류인 친문과 화합적 결합이 완전히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이런 상태에서 친문진영의 다른 후보들과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경선에서 승리하더라도 내부 결속이 실패해 본선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민주당 '탈당 거부' 5인 저항에 후퇴?

부동산 투기 의혹 의원 처리

경찰 수사 결과 보고 결정키로

더불어민주당이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뒤 자진탈당 권유에 응하지 않는 의원들과 관련해 경찰 수사를 지켜본 후 관련 조치에 나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13일 당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2개월 내 관련 수사를 종결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 곧 결정이 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지켜보고 혐의가 확인되면 징계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당장은 추가 조치를 논의하고 있지 않다"고 덧붙였다. 징계 검토 등 출당 압박 조치와 관련해 "애초 탈당 요청은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정무적 권유였다"며 거리를 뒀다.

송영길 대표가 '육참골단'의 결단으로 부동산 '내로남불' 논란을 정면 돌파했던 것에서는 한발 후퇴

하는 기류다. 다른 지도부 인사도 "경찰 수사에서 혐의가 없다고 확인되는 의원들은 자연스럽게 탈당 사유에서 해제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자진탈당 권유를 받은 12명 중 탈당을 거부하며 버티는 이는 김수홍·김한정·김희재·오영훈·우상호 의원 5명이다. 비례대표 의원 2명은 출당 조처됐고, 나머지 5명은 이미 탈당계를 냈다.

앞서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날 7일 민주당이 요청한 의원 전수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관련 내용을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이첩했다. 이첩 받은 기관이 '60일 이내' 해당 사안의 감사·수사를 종결하도록 한 법 규정상 내달 5일이 시한이 된다.

지도부가 탈당권유 조치를 조속히 매듭짓지 않으면서 사실상 애초 결정을 번복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는 지적이 제기되는 가운데 당내 반발을 무릅쓰며 사전 징계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탈당계 냈지만...민주당 '보좌진 성범죄 의혹' 양향자 의원 제명

광주 서구를 사고 지구당 전환

더불어민주당 양향자(광주 서구) 국회의원이 자신의 지역사무소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피해자를 '2차 가해'한데 대해 당으로부터 제명 처분을 받은 것과 관련, 13일 탈당계를 제출했다.

하지만, 민주당은 양 의원이 탈당계를 제출했음에도 제명할 예정이다. 당 내부에서는 "징계 과정에서 탈당계 제출은 징계 회피에 해당된다"고 판단해 서다. 이에 따라 양향자 의원의 복당도 힘들 전망이다. 또 성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양 의원의 사촌이자 지역사무소 관계자는 이날 구속됐다.

양 의원이 자진 탈당함에 따라 소속 국회의원 출당·탈당 사태가 잇따르고 있는 민주당 내부의 여진이 상당할 것으로 보이며, 내년 지방선거와 대선을 앞둔 지역 정가에도 파장이 예상된다.

민주당 고용진 대변인은 이날 "탈당계를 내면

저절로 당적이 없어지며, 윤리심판원에 모든 징계에 대한 기록이 남는다. 징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징계는 남아서 향후 복당 등에 제한이 생긴다"고 밝혔다.

민주당 중앙당 윤리심판원은 전날 양 의원에 대해 '성추행 관련 2차 가해' '피해자 회유' 등의 이유로 '제명'을 결정했다. 양 의원의 제명과 탈당 소식이 알려지면서 당 지도부는 '짚은 민주당의 성추문 문제'와 '부동산 의혹에 따른 국회의원 출당 조치' 등이 겹치면서 당측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적을 잃음에 따라 민주당 광주 서구를 지역위원회는 사고 지구당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위원장 선출 등 지역위원회의 재구성이 이뤄질 것으로 보여 지역 정가도 술렁이고 있다.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 나설 일부 출마 예정자들

이 지역위원장 자리를 겨냥, 경쟁에 뛰어드는 등 벌써부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양향자 서구를 지역위원회가 '원의 지역위'로 꾸려질 수밖에 없어 "지방선거와 대선에서의 역할도 제한적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한편, 이날 광주지법 김중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제추행 혐의로 양향자 의원실 지역사무소 관계자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양 의원의 사촌인 A씨는 지역사무소에서 일하며, 동료 여직원을 수개월 동안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경찰은 A씨가 양 의원의 정치자금 일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있는 것으로 보고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사건을 별도로 배당해 수사 중이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대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201210-중-116876호 단, 환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개원 19주년!!

2021년 첨단우리병원은 철저한 **감염관리**와 세심한 **회복관리**를 위해 항상 노력하겠습니다.

튼튼한 척추 튼튼한 관절
첨단우리병원

대표전화 | 062) 970-6000
 전화로 MRI를 미리 예약을 하시면 1~2시간 이내에 진단 및 치료가 가능!

모던 슬라브옥상 칼라강판 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아파트, 빌라, 원룸, 주택, 상가건물, 대형빌딩 등(슬라브 옥상) 시공

옥상지붕공사

슬라브 주택, 데스리 및 한옥 등은 칼라강판 지붕공사

옥상 스틸방수

갈라지고 물이 새는 옥상바닥 겨울의 차가운 냉기! 여름의 뜨거운 열기! 방수와 단열 한번에 해결!

옥상지붕공사 및 스틸방수 무료견적 디자인 등록 제30-0934833호 제30-0949873호

광주·전남 같이 하실 분 모십니다.

모던건설 (트윈스틸) 시공 문의 **062)531-3530, H. 010-9229-3530**